

■ 1977年 圖書館界의 回顧

圖書館學 教育과 研究

羅 成 實
崇義女專教授

I. 머 리 말

圖書館學의 教育과 研究에 關하여 지난 一年間을 回顧하기 위해서는 平素부터 各級 圖書館教育機關의 動靜이나 發表되는 研究物에 對하여 集中的으로 關心을 가졌어야 하고, 그것을 어느정도 評價할 수 있는 能力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筆者는 專門學校의 教授職에 있으면서도 教育과 研究에 對하여 平素부터 남다른 關心을 가졌거나 卓見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다만 새로 出發하는 專門學校圖書館學教育의 方向을 잡기위하여 職業上 圖書館學教育論에 關心을 가져왔을뿐이다.

이러한 筆者가 지난 一年間을 回顧한다면 바늘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格이 될 것이고, 잘 보았다 하더라도 走馬看山이거나 皮相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機會에 自身の 게으름과 無關心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心情으로나 1977年을 보내며 지난 一年間을 回顧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감히 先輩同學앞에 愚見을 피력코자 한다.

本稿는 道報, 國會圖書館報, 國立中央圖書館報(도서관)의 3대月刊誌에 發表된 論文·記事, 圖書館國內消息欄에 알려진 事項(1977. 10月號까지)을 中心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혹시 누락되었거나 잘 못 알고 있는 것에 對하여는 鞭撻있기를 바란다.

II. 圖書館教育

1) 正規教育

圖書館學에 對한 正規教育을 大學院, 特殊大學院, 學部課程, 初級·專門學校課程이라고 볼때 1977年度는 昨年度 1976年와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 또한 各課程의 特殊性에 立脚한 效果的인 教科課程의 編成과 教育方向에 對하여는 아직도 問題點으로 남아 있을뿐만 아니라 이 問題에 對한 協議會도 없었고 研究論文조차도 發表되지 않았다.

특히 實驗大學化되는 學部課程의 圖書館學教育의 問

題에 對해서도 아무런 公開的 討議없이 지나가고 있고 專門學校圖書館學科의 入學定員을 倍로 늘리면서(崇義女專의 경우 80名에서 160名으로) 이들의 進路에 對하여도 共同的 關心이 없었다.

大邱의 曉星女子大學에 圖書館學科가 創設(定員 30名)되어 大邱가 一躍 圖書館學教育都市로 浮上한 反面에 湖南不在現象은 그대로 있다. 即 教育의 內容이나 政策面에서 進展이 없었고, 教授養成에 關한 大學院課程의 教育課程이나 博士學位課程의 門戶에도 아무런 進展도 없었다. 延世大學校에 유일한 女子圖書館學博士 鄭映美氏가 就任한 것은 큰 收穫이었다고 생각된다.

2) 非正規教育

韓國司書教育院과 各種 講習課程을 非正規教育으로 볼때, 이 課程을 廢止하거나 轉向하여야 한다는 館·學界의 主張과는 달리 盛況을 이루었다. 延世大의 韓國圖書館學堂과 教育大學院의 司書教育專攻課程이 中斷되거나 廢止된데 反하여 成均館大의 韓國司書教育院은 定員 200名에 志願者가 그보다 많은 盛況을 보여주었으며, 準司書講習課程도(國立中央圖書館의 경우) 80名이라는 定員에 2次에 걸쳐 實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釜山教育委員會는 司書教師資格取得講習會(定員 80名)를 實施하였다. 準司書가 正司書가 되기 위하여 講習(司書教師)이나 韓國司書教育院의 正司書課程에 進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現職教育을 위한 館·學界의 움직임은 없었다.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實施하는 主로 科學技術情報 關係되는 電算情報處理講習이나 講演을 活潑하게 하고 있으나 嚴格한 意味에서 現職教育은 아니다.

現職教育發展을 위한 圖書館法(司書資格條項)의 改定이 時急하다.

III. 圖書館學研究

1) 圖書館學教育에 關한 研究

1976年까지 活潑했던 圖書館學教育에 關한 研究(특히

教育課程)는今年들어 5篇의 關心이 있었고, 6篇의 外國論文 紹介가 있었는데 이제까지의 中心論題였던 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論議는 자취를 감추었다. 筆者가 崇義論叢 第2輯에 發表한 『專門學校圖書館學教育의 方向』이 이제까지 論議된 諸論을 集約했다고 보아진다. 金重漢博士가 韓國圖書館學會,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에서 講演하고 國會圖書館報 6.7月號에 發表한 『美國專門職教育의 現在와 將來問題』一篇이 正規教育을 다룬 것이고, 나머지는 『情報時代의 圖書館教育, 金會山, 도서관 1月號』, 『圖書館과 文獻利用指導, 신숙원, 도협월보 1.2月號』, 『初等敎員의 資質向上 <現職教育을> 위한 圖書館教育<強化方案>』, 도서관 3.6月號<2篇> 뿐이다. 外國文獻紹介는 鄭在琬의 4篇『高等教育構造, 도서관②』, 『圖書館學校의 基準, 도서관④』, 『圖書館敎授法, 도협월보 ④』, 『情報科學教育과 研修의 最近動向, 도협월보 ⑥』外에 『英國의 圖書館學科와 圖書館學 및 情報科學教育, 韓淳品, 도협월보 ③』, 『司書教育의 變遷, 오동우, 國會圖書館報 6.7』가 있을 뿐이다.

以上과 같이 韓國圖書館學教育의 問題에 比하여 研究는 貧弱한 편이다.

2) 館種別의 圖書館學研究

① 公共圖書館 : 都合 10篇이 發表되었는데 그 中外國紹介가 1篇이고, 外國文獻紹介가 1篇이다. 이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役割, 金元植外 2, 도서관 ③』, 『公共圖書館과 마을文庫의 연계활동, 李庸南, 도서관 ④』, 『公共圖書館의 發展과 社會教育의 任務, 도서관 ⑤』, 『讀書人口開發과 公共圖書館의 役割, 도서관 ⑤』, 『韓國公共圖書館의 課題, 이택준, 國會圖書館報 6.7』, 『社會教育和 公共圖書館, 정명완, 國會圖書館 ⑩』, 『英國公共圖書館制度의 考察, 韓淳品, 도협월보 ⑨』, 『獨學을 위한 地域社會學習센터로서의 公共圖書館, 李暎實譯, 國會圖書館報⑩』. 以上에서 一目할 수 있는 것처럼 圖書館의 核心的 館種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研究의 量에 있어서도 不足한 느낌이 든다.

② 學校圖書館 : 他館種研究에 比하여 具體的이고도 實際的인 論文이 6篇 發表됐다. 그 6篇은 다음과 같다. 『國民學校學級擔任敎師가 處理하는 圖書館的 業務內容에 관한 考察, 李根鐵, 도협월보 ④』, 『敎科別基本資料目錄 設定活用을 통한 高等學校圖書館의 效率的인 運營方案, 李斗炯, 도협월보 7.8』, 『韓國高等學校圖書館職員에 관한 研究, 李弘榮, 도협월보 ⑤』, 『地域社會學校 一環으로서의 學校圖書館, 박영덕, 도협월보 ⑩』, 『學校圖書館의 發展策, 金京一, 國會圖書館報 6.7』, 『學校圖書館을 통한 讀書人口의 底邊擴大方案,

柳相德, 도서관 ④』. 以上의 研究에서 特記할 事實은 敎科別基準資料目錄과 같이 敎授學習과 直結되는 研究가 있다는 것이다. 初·中·高에서 敎科別은 勿論 單元別 參考資料目錄이 設定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研究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圖書館이 教育機關이라는 自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圖書館發展의 지름길이 기 때문이다.

③ 大學圖書館 : 이 館種에 관하여도 7篇이 紹介되었는데 그 題目은 다음과 같다. 『大學圖書館의 새해 展望, 金南碩, 도협월보 1.2』, 『大學圖書館의 참모습, 신숙원, 國會圖書館報 6.7』, 『國立大學圖書館의 當面課題, 金光永, 도서관 ⑩』, 『嶺南의 大學圖書館實態分析, 權起遠, 도서관 7.8』,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事故圖書館問題考察, 金萬碩, 도서관 ①』, 『大學에 있어서 分館을 위한 指針, 李炳穆譯, 도협월보 7.8』, 『大學圖書館을 위한 基準, 李炳穆譯, 도협월보 ⑥』,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育問題가 除外되었다. 前記 신숙원敎授의 文獻利用指導가 있을 뿐이다. 大學教育 特別實驗大學과 關係되는 研究가 아쉽다.

④ 其他圖書館 : 特殊圖書館에 관한 것이 없고, 兒童圖書와 兒童圖書館에 관한 것이 각 1篇, 女性專門圖書館關係가 2篇이 있는데 同一筆者이다. 即 『어린이 專門圖書館에 관한 考察, 강준호, 도서관 ⑤』, 『兒童圖書館研究의 參考書誌, 金京一, 도서관 ④』, 『女性專門圖書館에 관한 考察, 강준호, 國會圖書館報 6.7』, 『女性關係資料室에 관한 考察, 강준호, 도서관 ⑨』이다. 兒童圖書館은 國民學校圖書館教育和 더불어 우리의 가장 重要한 研究課題라고 생각한다.

3) 其他 主題別研究

外國圖書館 紹介가 13篇(見聞記·實務記包含), 圖書館과 社會·國家·教育에 대하여 8篇, 情報關係 15篇, 書誌統制에 대하여 4篇, 分類·目錄에 關하여 7篇 讀書·出版에 關하여 12篇, 資料에 關하여 11篇, 書誌解題 約 20篇, 其他 9篇이 全部이다. 其他 9篇中 紹介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사업계획상의 기초이론, 김중환, 國會圖書館報 8.9』, 『圖書館業務機械化의 範圍와 우리나라에서의 開發方向, 金光永, 國會圖書館報 8.9』 『圖書館에 있어서 시스템接近方法에 관한 小考, 李英子, 도서관 7.8』, 『新聞社說을 통해 본 圖書館關係論調의 分析, 金萬碩, 도서관 ⑩』等이다. 以上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情報關係가 많은 便으로 關心의 方向을 알 수 있겠고, 閱覽管理나 奉仕에 관한 論文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特徵이다. 圖書館奉仕에 關하여 이렇다 할 論文이 없는 것은 圖書館의 目的이 무엇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과도 聯關하여 생각해볼 必要가 있으며 圖書館人의 地

位向上을 위한 어떠한 研究도 없는 것은 現職教育論이 없는 것과 有關하다고 생각 할 때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같다. 또 圖書館學界 特히 元老教授들의 發表가 없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本稿가 3大月刊誌에 局限하여 嚴格한 意味에서 이 月刊誌들이 專門學術誌가 아니긴 하지만 產學協同이라는 時代的 潮流와 要請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우리는 現職教育의 制度가 없는 實情임으로 이 3大誌들이 間接的이나 現職教育場의 役割을 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한다면, 더우기 追隨指導라는 立場을 教授들이 外面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特히 道협월보는 會員이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月刊誌인데 이를 活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月刊誌들도 그 特性을 살려야 하고, 會費制라도 圖書館人 各自가 받아볼 수 있는 方法을 講求하지 않으면 現職教育的 役割은 어려울 것이다.

4) 大學教材開發(單行本著書)

한마디로 圖書館學教材難은 심각하다. 韓國圖書館協會가 『現代圖書館學研究』誌를 季刊으로 發行하여 主로 外國文獻을 번역하여 教材 開發을 摸索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今年들어 最大의 收穫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教材를 目標로 해서 發刊하지는 않았지만 釜山女專 林泰三 教授의 『圖書選擇論』을 비롯하여 中央大 鄭駉謨教授의 『文獻情報學原論』, 梨花女大 金世翊教授의 『圖書館組織經營論』, KORSTIC 司空哲氏의 『情報檢索論』, 그리고 再版이기는 하지만 國會圖書館 李丙洙氏의 『圖書分類法의 比較와 分類의 實際』가 出刊되었다.

昨年度이기는 하지만 成均館大 崔成眞教授의 『情報學原論』이 있고, 또 圖書館學研究를 위해 貢獻이 큰 것으로 啓明大 併設專門學校 朴俊植教授의 『韓國圖書館關係文獻索引 1945—1974』이 있는데 이것은 文獻研究의 基盤이 固執을 한다.

이 밖에 延世大 李載喆 教授와 國立中央圖書館 玄圭燮氏의 努力으로 『國際標準書誌述法 (단)(련)』2冊이 번역 刊行되었고, 慶北大 孫正彪 教授의 『讀書指導論』을 出刊하였다고 한다.

IV. 圖書館學關係機關의 研究活動

韓國圖書館學會가 會誌를 續刊하지 못하고, 金重漢 博士(前述)와 鄭映美 博士의 發表會를 가졌다. (鄭映美 博士學位論文要旨發表: 學術雜誌의 論文分析에 관한 非 Bradfordian 的 모델)

韓國圖書館協會와 大韓出版文化協會가 讀書週間세미나와 어린이 冊간치(兒童圖書出版·讀書教育세미나)를 개최하였고, 全國公共圖書館세미나 『讀書人口開發과 公共圖書館의 役割, 公共圖書館發展過程과 社會教育의 任務』等 이 있었고, 圖協慶北地區協議會가 『靑少年間

題와 圖書館機能』을 主題로 大會를 가졌었고, 「慶北圖協」을 發刊했으며, 釜山市 學校圖書館研究會가 『學校圖書館運營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案』發表會로 갖고 機關誌 『학교도서관』을 發刊하기로 하였다.

서울市 司書教師研究會(圖協學校圖書館部會)가 前述 李斗炯氏의 發表會를 가졌다.

그밖에 圖書館學會의 活動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또한 大邱의 慶北圖書館學會가 그 모임을 活潑히 가졌던 것으로 傳聞되고 있고, 韓國圖書館學研究會가 계속 出版物을 刊行하고 있다. KORSTIC의 講演會는 두드러지게 活潑하였다.

以上에서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본다면 가장 權威가 있고, 또 教授들이 거의가 參與하는 韓國圖書館學會가 그 任務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V. 맺 음 말

上述한 바와 같이 走馬看山式으로 지난 10個月間의 圖書館學 教育과 研究에 대하여 回顧하여 보았다.

圖書館의 發展은 圖書館學의 教育과 研究의 土壤에서 可能하다. 圖書館現場의 問題와 遊離된 教育과 研究는 生命이 없다. 따라서 韓國의 圖書館學教育은 韓國의 圖書館狀況을 떠날 수 없다. 또한 教育은 研究의 結果없이 그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의 圖書館學 教育과 研究는 反省할 點이 너무나 많다.

앞에서 보듯이 最新의 圖書館統計가 없고, 國家의 圖書館政策에 대한 批判이 없고, 司書需要(人力需給)에 대한 未來指向의 研究가 없고, 現場이 要求하는 司書像이 없는 限 圖書館學教育은 現場과 遊離될 수밖에 없다. 多幸히 現場人들이 主業務遂行의 어려운 逆境에서도 活潑히 現場研究를 게을리하지 않는데 反하여 多少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教育과 研究가 主業務인 教授職에 있는 本들이 現場問題에 無關心하는 것 아닌가 한다.

筆者 自身도 專門學校의 教授職에 있지만 學生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研究를 게을리 하였다. 우리의 圖書館學 教育과 教育은 이제 再點檢할 時期에 왔다고 보아진다.

韓國圖書館協會의 教育調查分科委員會의 責務가 여기에서 있지 않는가 한다. 어느분이 外國에 갔다와서 傳하는 말을 빌리면 圖書館現場人들이 圖書館學教授들을 모셔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司書를 원하니까 이렇게 教育해 달라”는 式으로 의연하게 要求하고 이에 教授들은 그러한것을 열심히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圖書館學研究도 現場이 願하는 司書養成을 위하여 그리고 未來의 바람직한 司書像이 定立되는 方向으로 活潑히 展開되어야겠다.

韓國圖書館學 教育課程에 圖書館學教育論이나 圖書館學研究方法論이 없는 以上 이만한 成果를 批判할 根據는 없다. 그러나 論戰이 없는 조용한 學界, 現場分析이 없는 教育 그리고 現職 研修制度가 없는 館界의 止揚을 위한 研究가 優先해야 겠다.